

# “국정화 저지” 文-沈-千 손잡고 거리로

### 문재인·심상정·천정배 ‘1천만 서명·불복종 운동’ 참여 정치권, 내년 총선 야권 연대 가능성에 촉각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신당을 추진하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2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함께 거리로 나서면서 ‘야권 연대’를 본격 가동했다.

문 대표와 심 대표, 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신촌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1천만 서명 불복종 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국정교과서 반대’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른 문 대표는 이날 “야권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사 교과서를 포기할 때까지,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상식이 이깁니다’라는 어깨띠를 두른 천정배 의원의 “국정 교과서 문제는 이 나

라의 민주주의와 헌법과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망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문 대표가 반대 서명 운동 과정에서 보수단체의 격한 항의를 받았던 점을 고려,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 주말 교과서 국정화 반대 홍보를 위한 전시관 개관에 함께 참여하는 등 공동대응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위원들은 광화문에서 릴레이 서명운동을 벌였고,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홍보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선전전도 이어갔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연대가 내년 총선에서의 선거 연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신당 창당이 이뤄지더라도 야권이 선거 연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반 여권 연대가 국민의 공감 속에 이뤄진다면 차기 총선의 승패는 박빙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복지사업 통제와 관련,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위원장 물망에 올리는 등 전방위 대어압박을 계속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사업을 조사한 뒤, 유사중복 사례라는

이유로 사업을 막으려 한다”며 “정부의 대책 없는 예산 떠넘기기로 지자체들은 예산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대표는 “정부가 돈을 불모로 지자체를 통치, 힘겹게 이룬 지방자치를 유신시대와 관선지방통치시대로 되돌리려 한다”며 “지방자치 원조 정당의 자존심 걸고 이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역사 전쟁이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전방위 강경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너무 투쟁 일본도로 나서면 여론의 역풍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정부 예산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결집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평가 라운지

### “재외 한국학교, 동해→일본어 표기 지도 사용”

#### 박주선 무소속 의원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재외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 등으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21일 공개한 ‘일본 내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홈페이지의 지도표기 현황’에 따르면 일본 내에 있는 4개의 한국학교와 15곳의 한국교육원 중 11곳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 또는 ‘리양쿠르 얄초’로 표기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한국학교들이



일본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재외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이 일본 정부의 논리를 홍보하는 전도사가 된 격”이라며 “영토주권이 걸린 문제에 대한 지도 표기조차 제대로 못 하는 교육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심히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영석 해수부 장관 내정자 아파트 투기 의혹”

#### 황주홍 새정치 의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가 서울 강남에 투기 목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21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현재 강남 도곡동과 경기 일산에 31평과 25평 아파트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일산 아파트는 지난 2001년 8월, 도곡동 아파트는 2002년 2월 구입했다. 황 의원은 “2001년 도곡동 아파트 시세는 3억6000만원에서 4억원에 책정됐



지만 현재 아파트 동수 시세는 9억원에 달해 시세차익만 5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일산 아파트에 주소를 둔 김 내정자가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김 내정자가 2001년 당시 해양정책 개발과장으로 근무했고, 올해 3월 신고한 재산공시에 따르면 총 재산은 4억원이 조금 넘는 아파트 구입 당시 자금 출처도 밝혀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文 ‘사퇴 보류’ 소동

### “부산 사상 지역위원장 아직 입장정리 안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부산 사상 지역위원장 사퇴를 보류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당 조직본부에서 마련한 회의 안건에는 탈당한 박주선·박기춘 의원 지역구인 광주 동구, 남양주 등과 함께 문 대표 지역구인 사상을 사고위원회로 정하고, 배재정 의원(비례)을 사상 지역구 직무대행으로 지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각 최고위원들에게 배포된 회의 문건에는 문 대표가 전날 이미 지역위원장을 사퇴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지금의 때가 아니다. 더욱이 사상에서 10·28 기초의원 재선거가 진행 중인 만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안전 처리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래전에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 때문에 회의자료가 그렇게 정리된 모양인데, 아직 다 (출마 문제 등) 결정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처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실제 회의 때에는 뺐으니 오해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위원장 사퇴 반대가 부산 출마와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입장이 다 정리된 것도 아닌데 지금 시기에 처리하는 게 이런저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 동구와 남양주 사상 지역위원으로 지정됐다. /박지경기자 jkpark@



안, 광주서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박혜자 광주시장 위원장과 함께 2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에서 ‘천일 독재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여고생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文, 분열적 사고 벗어나야 통합”

### 안철수 광주 방문... “박대통령 국정교과서는 낡은 정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1일 “문재인 대표가 스스로 분열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통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 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저한테 새누리당 프레임을 씌웠다. 당내에서 자신과 다른 사고를 가졌다고 ‘새누리적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은 해서는 안될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논쟁”과 관련한 대립과 관련해서는 “혁신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라며 “병(病)은 제대로 진단을 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는데, 진단도 전혀 없이 약만 나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제가)혁신안을 던지면 당연히 일어나는 반대를 역동적 에너지로 만들어야 내야 한다”면서 “(제가)혁신안을 제시했을 때 문 대표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했으면 전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이후

논의과정에서 당이 자리 잡을 수 있었는데도 문 대표도, 혁신위원장도 혁신의 개념을 정확히 꿰뚫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혁신안을 두고 현역 물갈이를 우려한 일부 호남 의원들이 반발한 데 대해 그는 “정치 제도나 문화를 바꾸는 물갈이해서 명분, 지지를 얻고 그 힘으로 고기 갈이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참 고약하다”며 “1970년대식 낡은 정의로 돌아가겠다는 발상이고, 더 고약한 것은 국민을 편 가르기 해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이라고 비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정쟁은 그만... 민생 해결에 집중을”

### 전남선관위 총선 정책선거 희망 메시지 캠페인

“후보자님, 소모적인 정쟁(政爭)은 그만두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집중해 주었으면 합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13 총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선거를 이끌기 위해 ‘2016 정책선거 캠페인-희망을 달아주세요’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2월 2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희망나루 캠페인은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구 후보로 나서는 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에 바라는 내용(공약·정책) 등을 희망 쪽지에 적어내면, 입후보예정자 등이 이를 보고 자신의 정책 및 공약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도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희망나루에 내건 희망쪽지를 예비후보자등록 및 후보자등록 1개월 전에 수거, 각 후보자 또는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희망나루는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금융기관 등 전남지역 23곳에 마련돼 있다.

도선관위는 도선관위 누리집(www.jinnec.go.kr)과 카카오토키(카카오토키 검색창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입력)를 통해서도 유권자들의 희망 쪽지를 접수받는다.

도선관위는 매달 희망쪽지를 내건 유권자들 중 5명을 추첨,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

**담보 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임대보증금 대출

감정가 대비 70% 가능

최대 2,000만원 가능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 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p>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p>	<p>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p>	<p>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p>
---	--	--